

성경의 경제관

Economic Principles in the Bible

조성표

- I. 머리말
- II.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
- III. 성경의 재물관
- IV. 성경의 노동관
- V. 성경의 분배관
- VI. 경제체제와 성경의 경제원리
- VII. 맺는 말



조성표,

조성표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인회계사로서 대우중공업 예산과장 대리를 역임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미국 perdue대학에 Post. doc으로 출국 중이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기획담당을 역임한 바 있으며, 개인 및 가정의 성경적인 재정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바라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CUP 간) 등의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Abstract

Bible says that God is the creator, sustainer and owner of the universe, while man is a steward who is given dominion over the created order to care for it and to use it for sustaining his existence. Each person, therefore, is accountable to God for his stewardship. In this paper, I spell out the implications of the stewardship under three broad headings: wealth, work, and distribution of goods. Bible show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 wealth. Wealth is one of the blessings from God, but it can become an idol, a critical barrier to serve Him. Our wealth should be used to both sustain ourselves and support His work and our neighbors. Work is a creation provision, not a result of the fall. Man has a right and an obligation of work which is the means of exercising his stewardship over this world. Every person has a right to share God's provision for mankind for their basic needs. The rich, therefore, have an obligation to help the poor who can not provide for themselves by work. Any economic system, a result of our efforts to resolve economic problems, is incompatible with biblical principles.

I. 머리말

물가,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생산성 등 많은 경제용어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의 경제문제는 경제학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의 과제는 사회에서 물질적 복지를 공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매일의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Heilbroner 1985, p.1). 즉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물질(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성경적 원칙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 특히 경제생활은 하나님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경제생활, 즉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 속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지적하고 계시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경계하여야 할 우상임을 강조하고 계신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즉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우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명확히 알고 이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나타난 성경의 경제관을 살펴보

고자 한다.

경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분이므로 우선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살펴볼 것이다(II장). 경제는 물질에 관한 것이므로 다음에는 성경에서의 재물관(III장)을 보고, 물질(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작용인 노동관(IV장),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을 나누는 분배관(V장)을 살펴본 다음, 세상의 대표적인 두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원칙과 성경의 경제원칙을 비교(VI장)하게 될 것이다.¹⁾

II.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은 성경의 경제관의 중심이다. 이를 청지기사상(stewardship)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창세기와 달란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1. 주인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성경 첫 절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사실이 여러번 언급되고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출 19:5), “은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욥 41:11), “땅과 거기 충만한

1) 사무엘슨(P. Samuelson)은 경제의 과제를 다음 세 질문으로 요약하였다.

- ①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야 하는가 ?
- ②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야 하는가 ?
- ③ 누구를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야 하는가 ?

첫 번째 질문은 재화 및 용역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서 재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질문은 생산방법에 대한 것으로 노동관, 세 번째 질문은 생산물의 분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분배관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 24:1).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 산, 바다, 하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옷, 음식은 물론 자신의 능력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청지기인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자연을 돌보며 이를 생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치권(dominion)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²⁾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창 1:26).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이지만, 다른 여타 피조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³⁾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만물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또는 관리자)인 것이다 (시 8:6).

성경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특정한 범위의 자연에 대한 통치권은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셨으며, 아브라함, 야곱, 욥 등은 많은 부와 재산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 통치권은 현대에 통용되는 ‘사유재산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사유재산권의 개념에 따르면 재산을 소유한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청지기의 원칙은 나의 뜻이 아니라

2) 이를 일반적으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한다.

3) 인간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靈)을 받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부왕(副王)의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성경과 합치되는 개념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자원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거나 낭비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안된다.

청지기 개념은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보면 주인(하나님)의 재산은 각 종(청지기)에게 능력에 따라 맡기워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마 25:14-30, 눅 19:11-27). 청지기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구약시대의 토지의 양도에 관한 규례와 도적질 금지에 대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땅은 여호와께서 주셨으며, 이를 이방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그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회헌에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지게 되었다(레 25:8). 또한 8번째 계명인 도적질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부여하신 수탁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를 창조하셨지만 이 모두의 관리를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부는 전적으로 인간의 처분에 달려있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의 유용성이 결정된다. 즉 부는 각 개인에 따라 선택하고 창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천박한 일에 낭비되기도 한다.

3.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는 청지기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재산의 청지기들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만큼, 많게나 적게 우리에게 맡기기를 결정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자원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눅 19:11-27, 마 25:14-30).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직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 타락한 인간은 죄된 성품에 따라 더

이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게 되었고 이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었다. 재물은 단순히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었고, 탐욕적으로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낭비와 탐욕은 엄하게 정죄되고 있다 (신 21:20, 암 6장, 딤후 1:12).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창 9:1,2).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에서와 같이 언젠가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청지기된 책임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청지기직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불충하였는지 그 일한대로 정확한 상급 또는 꾸중을 받게 될 것이다(마 25:21, 26, 계 22:12).

III. 성경의 재물관

과거에는 부가 토지, 보석, 식물, 동물 등 물건과 노예 등 유형의 재산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신용도 부의 일종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인성의 일부조차도 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물질적인 가치척도가 재물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성, 명성, 실력 등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재물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 부의 속성

성경에서는 돈이나 물질적인 부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위험성 혹은 재물이 갖는 우상성을 지적함으로써 부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재물관을 보기 위

하여는 재물의 이 두 측면을 균형있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상규 1991, p.113).

1)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 부의 축복성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는 물질적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 은이 풍부하였더라”(창 13:2)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으며, 그의 아들인 이삭 또한 부유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 물질을 위한 복을 간구하였다(창 27:28). 의인이었던 욥은 당대의 부자였고 자신이 소유한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소산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였다. 더욱이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산이 갑절이나 더하도록 부를 허락하셨다(욥 42:12).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왕상 3:10),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부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왕상 3:13).

신명기 28:1-14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2절). 그 이외의 곳에서도 성경은 부에 대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말씀하고 계시다(잠 10:22, 전 5:19).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거나 부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부가 하나님의 여러 축복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2) 영적 위험으로서의 부: 부의 위상성

신약에서는 물질적 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이자 소유, 곧 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셨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눅 12:16-21)와 부자 관원의 이야기(마 19:16-30, 막 10:17-31, 눅 18:18-30)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영적 위험성과 우상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재물, 그리고 도덕성까지 갖춘 이 청년에게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막 10:21, 눅 18:22)을 보셨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물질에 대한 미련과 신뢰를 깨끗이 버린 세리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그의 소유를 모두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마 27:57, 눅 19:8-9). 이를 보면 부의 소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2. 부의 진정한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부의 기능, 즉 부의 용도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1) 기본적인 욕구충족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세상을 우리의 식물로 주셨다(창 1:29, 9:3).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창조질서에 합당하다. 창조질서는 인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경제생활은 이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딤후 4:4, 창 1:31, 신 16:11, 렘

2:7, 행 2:46). 위에서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소비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과 탐욕스러운 욕망(desires)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뉜다. 욕구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딤후 6:8), 욕망은 이를 제외한 여타 용도(사치, 과시, 탐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요일 2:15,16)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물질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서 지나서 사치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계시다. 물질은 우리의 물리적 생존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목적이나 의지하여야 하는 우상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재물의 본연적인 기능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만족시키는 것이다.⁵⁾

2) 하나님 사역에 참여: 헌금과 나눔

헌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의미한다. 헌금은 크게 나누어 우리의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십일조(말 3:8-12)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연보(liberty)로 구분할 수 있다.

4) 욕구와 욕망의 구별은 소비하는 재화의 금액보다는 소비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의 구별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심미적(審美的) 욕구(욕망?)는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이 어렵다.

5) 자원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이 지구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소비할 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 인도의 간디는 “이 지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우리의 사치한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 사실을 간파한 바 있다.

나눔이란 어려운 이웃의 구제를 위한 기부를 의미한다 (마 25:31). 우리는 우리의 여유분을, 어떤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희생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차적인 직무이다.

이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고후 9:7), 그리고 예비함으로(9:2) 하여야 하며, 유복하거나 어려운 중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눅 21:1-4)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IV. 성경의 노동관

우리는 우선 우리의 인간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타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형상은 죄에 오염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형상이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기초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초에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계신가를 살펴해보아야 한다.

1. 일의 개념의 변천

창조시 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동일한 명령을 하셨다(창 1:28).

이에 따라 아담은 에덴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 즉 “경작하고(till: RSV) 돌보는(take care of: NIV)”(창 2:15)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일임을 알 수 있다. 즉 일은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의도 중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 일에 의하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대리자로서 또 이 모든 영광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탐구하여 알고, 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여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서철원 1988). 이것이 우리 일의 본연적인 의미인 것이다⁶⁾.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일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의 목적과 방향을 오도하여 버렸다. 타락의 결과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 버렸다. 즉 “수고하고”(창 3:17) “얼굴에 땀을 흘려야”(창 3:19)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의 직업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상이한 직업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비극을 낳게 된 것이다. 홍수 이후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합심하여 행한 최초의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일의 동기가 본래 일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반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창 11:4).

애굽에서의 이스라엘백성의 종살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은 협동이 아닌 지배와 수탈의 관계로 전락하였으며, 착취와 압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약 5:4). 또한 유물론이 등장하여 일을 우상시 하기까지 이르렀다(전 5:10). 현대 경제학에서는 일을 여타 물질과 동일한 비용 항목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는 ‘비효용’, 즉 고통으로서 이에서 면제되

6) 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살펴보면, ① 일은 인간 타락에 따른 저주이다. ② 정신적(신앙의) 일은 고상하나 육체적 일은 천박한 것이다. ③ 일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등이 있다.

어 여가를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회가 우리 인류의 오랜 꿈인 유토피아인 것이다⁷⁾.

타락의 결과로 왜곡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셨기 때문에(골 1:20), 구원받은 성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엡 1:23). 즉 타락한 일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시 일의 본연의 의미를 지향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기초하여 일의 의미를 상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일의 본연적 의미

1) 일은 인간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앞에서 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의 독특한 점은 그의 받은 사명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은 창조섭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으며(창 2:3), 타락 이전에도 충만하고, 다스리며(창 1:28), 에덴 동산을 지키게(창 2:15) 하셨다. 그 이외에도 시편 기자(104:21-23), 잠언 기자(6:6), 넷째 계명, 바울(살후 3:6-13) 등도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모두에게는 일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일은 우리에게 권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다.

7)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 자체에서 성취를 이루기 보다는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일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목적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윤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통치하며,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creative)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글자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출 36:1).

타락의 결과 일이 수고가 되었지만(창 3:17-19),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단적인 일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된다.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이해하거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예를 들어 돈, 권력 등)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3) 일은 사회적 활동이다.

인간이 함께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각자의 능력과 기술에 따라 일하여 그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은 자연질서에 대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 이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이란 함께 운영할 사업에 동료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노동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8) 일의 의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의 분화 이후에 더욱 약화되었다. 일의 전문화와 분업화로 인하여 일의 능율은 향상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일의 진보인가, 아니면 일의 퇴보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4) 성경적 휴식의 중심은 예배이다.

일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휴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출 20:9). 즉 안식도 일과의 연관성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안식 또는 휴식의 개념을 현대 사회의 여가의 개념인 단순히 노는 것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성경에서 휴식의 개념은 사람과 자연을 쉬게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특히 예배는 휴식의 성경적 개념의 중심이다. 인간은 진정한 그들 자신이 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상에서 물러 나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휴식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조상국 1991, p.42).

그리스도인 경제학자 슈마허(Schumacher)는 그의 명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주며,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이를 온전케 하며,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헌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여 준다는 세 가지 목적을 든 바 있다.

인간의 일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하나님을 대리한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이거나 창조물을 보전하고 종말론적인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⁹⁾. 이것이 일의 본연적인 의미이다.

V. 성경의 본배관

- 9)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다만 우리는 이에 미약한, 그리고 부분적인 기여만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1. 창조섭리의 보편성

창조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연을, 즉 물질을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을 취할 권리가 있다. 즉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먹이시고(창 2:16) 입히셨으며(창 3:21), 광야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 또한 추수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고 계시며(레 19:9,10, 신 2:19-22), 전당잡은 옷도 밤에는 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출 22:26).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인간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마 6:25-32).

땅에 대한 규레나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부의 자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일한대로 공정하게 크거나 작거나 상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보면, 일한 시간에 관계 없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분배기준은 그의 노력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에서는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의미와 함께 각자의 생존을 위한 사랑이 고려되는 것이다.

2. 성경적 분배원리

1) 일의 양과 질에 따라 그 대가가 돌려져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분배기준 중 우선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즉 공정한 임

금(just wage)과 정당한 가격(just price)이 성경의 도처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꾼은 그 결실을 바라고 일을 하기 때문에(고전 9:10),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눅 10:7, 딤후 5:18). 여기서 일의 싹 또는 결실이란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꾼이 수행한 일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평균(equality)으로 번역된 것은 대개 공정(fairness, 헬라어로는 isotes)의 의미이다(골 4:1, 고후 8:14). 여기에서 공정이란 한 일에 상관없이 균등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양과 질에 따라 그 대가가 돌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의 기여도에 상관 없이 균등한 대가를 받는 사후적인 산술적 균등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인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전적인 기회의 평등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소득들이 축적되어 재산을 형성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자원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자원을 소유한 유산자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주는 그들의 피고용자들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접하여야 한다(골 4:1). 또한 구약에서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를 남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레 25:16).

2) 특정 자원에 대한 개인적인 통치권은 그 자원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은 부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는 최대 한도가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나쳐

탐욕과 사치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제시다. 광야시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충분한 만나를 공급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일용할 것보다 더 많이 취하였는데, 이 여분의 만나는 썩어 냄새가 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용할 것 이상으로 취하는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 아모스 6장과 야고보서 5장 등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열 번째 계명과 신약에서도(마 7:22, 엡 5:3) 탐욕은 정죄되고 있는데, 탐욕은 지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욕심 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딤후 6:6-10).

앞에서 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수탁자로서 그 앞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맡은 부로부터 나오는 효익을 사회에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도 십일조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오천 명의 무리의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시고 먹이셨다(요 6:5).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창조의 일부분에 대한 관리자로서 동역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사이지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재물이 돌려져야 한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제시다(갈 2:10). 특히 믿음의 형제를 더욱 돌보아야 한다(갈 6:10). 그런데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책망하시는(살후 3:10) 것을 볼 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도 추수시 떨어진 포

도 열매와 이삭은 줍지 않도록 하고(레 19:10, 23:22), 회년에 휴식하는 땅에서 자연적으로 난 곡식들은 그대로 두어 고아나 과부, 이방인들의 몫으로 하고 있다(레 25:5-7).

빈궁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요일 3:17, 갈 6:10, 대천덕 1989).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딤후 3:14, 마 6:19-20).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불구자와 같은 이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는 성경이 가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무능력하며, 사회 안에서 상처받기 쉬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배려를 통하여 강하게 됨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성경적인 분배 기준은 공정과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일한대로 그 대가가 돌려 지지만,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고아, 과부, 불구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공의)과 사랑,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의 두 특징이기도 하다.

VI. 경제체제와 성경의 경제원리

인류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나타난 것이 경제체제이다. 경제체제들은 위에서 제시된 각 경제문제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성경적인 경제원칙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정신을 소유권의 개념과 인간관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사상의 핵심은 자유방임사상이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는 사적으로 소유되며 누구에게도 간섭받음 없이 임의로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율적 행동이 가능한 이성적인 인간으로 전제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사상의 핵심은 평등사상이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재화는 국가에 공적으로 소유되므로 그 재화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국가의 지시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에서도 인간을 스스로 모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기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듯이 보이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 기본 밑바탕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두 체제 모두가 스스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진보주의 정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이 둘의 관계를 질투가 많은 자매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였다(Goudzwaard 1979).

성경적 경제관의 핵심은 청지기개념이다. 즉 성경에서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자연들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말씀하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축재하거나 낭비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었으나 타락으로 그 모습이 훼손되었으므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시다. 이와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있는 존재이며,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소임에 대한 회계(會計)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현존하는 경제체제들은 이러한 성경적 경제원칙에 모두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작된 자본주의체제는 물질적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소 우세함을 보이고 있지만 물질적 세계관의 만연, 인간의 소외현상,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에서 시작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유사한 진보주의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되었으며 낮은 생산력으로 인하여 인민전체의 빈곤을 초래하고 말았다.

VII. 맺는말

효율(efficiency)과 평등(equality), 이 둘은 이 세상의 모든 경제체제들이 쫓고자 하였던 두 마리의 토끼였다. 자본주의는 주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정도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고, 사회주의는 평등에 주력하여 사랑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나 효율성의 면에서 실패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둘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성경에서 그 근원을 도적질하였다는 의심이 들만큼 그 이상은 성경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타락에 따른 인간의 죄된 성품은 서로 도우며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상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죄성으로 회미해졌기 때문에 계획에 의하여 통제하고자 할 때 방대한 자료에 대한 처리 능력의 한계로 실행이 어려운 것이다.

자본주의 또한 물질의 생산에 있어 우월성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를 맞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탐욕에 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선택하여 자본주의의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하고 이를 팔고루 나눈다면 위기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경제체제는 결코 인간 구원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각 체제의 여러 문제점은 제도 자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즉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죄된 성품과 회미해진 지적 능력이 더욱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하신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후 5:17).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를 행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조차 없다(고전 2:11-13).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그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주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나라에 청지기로서 일조를 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대천덕 (1989)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서철원 (1988) 「문화명령」,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소책자).

양승훈 (1990)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이상규 (1991)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하나님의 축복인가? 물질의 우상성인가?”, 「통합연구」, 제4권 2호, pp.107-135.

전광식 (1991) “가난과 부요의 저편: 아굴의 기도와 성경적 소유원리,” 「통합연구」, 제4권 2호, pp.181-200.

조상국 역 (1991) 「크리스찬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옥스포드선언」,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조성표 (1990) “경제체제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 대구, 「통합연구」(3권 3호), pp.140-147.

조성표 (1992) 「성경에서 바라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소책자).

Cramp, Anthony (1980) "The Economic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Institution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Michigan, Calvin College, pp.139-172.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Griffiths, Brian (1984) *The Creation of Wealth: A Christian Case for Capitalism*,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Grudem, W. A. (1989), "How an Economic System Can

Be Compatible with Scripture," in R.C. Chewning(ed.), *Biblical Principle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s*, Colorado, Navpress, pp.27-52.

Halm, George N. (1968) *Economic System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강영철 역, 1985, 「경제체제론입문」, 청사)

Hay, Donald A. (1975)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

Hay, Donald A.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Soci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

Hay, Donald A.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Apollos, England.

Heilbroner, Robert L. (1985)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7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Larry Burkett (1975), *Your Finances in Changing Times*, Moody Press, Illinois.

Larry Burkett (1989), *The Complete Financial Guide for Young Couples*, Victor Books, Illinois (조성표 역, 1992, 「돈걱정 없는 가정」,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Samuelson, Paul A. (1980), *Economics 11th ed.*, McGraw-Hill, New York.

Schumacher E. F.,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김진욱 역, 1986,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범우사).